

서 면 질 문

김삼중 의원

1. 삼성전자 부천공장의 실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삼성전자 3,000여 사원의 차량은 공장주변 500m 이내에 산재하여 주차되어 있으며 이 지역 교통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는 특례인지 아니면 주차장 확보 건의를 해본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아울러 위험물 취급소가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고 상하차시 자주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대책과 위험물질이 무엇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내부로 이전이나 도시외곽 이전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현장 확인 후 답변바랍니다.
2. 부천시에 경로당이 220여 개나 되는데 그 중 시가 경로당 예산으로 투입하여 지어준 곳은 몇 곳이며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곳은 몇 개인지 구분하여 밝혀주고, 예를 들면 아파트관리소, 공원관리소, 무허가 건물 등 또한 상시거주 인구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상시 3~4명씩 개신 곳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 확인한 사진을 첨부하여 답변바랍니다.
3. 약대사거리에서 서울 신월동간 도로계획에 대하여(도면참조) 수년간 공장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사하는 등 경제활동에 지장이 많고 또 춘의로 확장과 약대로 개통으로(96년 12월) 또한 새로 조성중인 도당산공원 관통계획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보아 그 계획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장확인 후 (시장께서) 성실한 답변 바람. 예산 또한 1천억원이 훨씬 넘는데.
4. 오정구청 정문 앞에서 도당동 246번지, 즉 소사자동차학원 앞길에서 현대자동차학원을 가로지른 도로는 도당로(도면 5) 개통과 발맞춰 통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복개천 위 특정업체의 적체물이나 개인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형평성과 교통흐름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즉시 정비하여 소방도로로서의 개통을 검토바랍니다.(도면참조)
5. 중앙로 버스전용 차선제 실시에 대하여 시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계획과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택시들의 여론에 밀렸는지 지금은 백지화됐으며 경제난과 공무원 차량 5부제 등으로 지금은 시기가 도래됐다고 보는데 경찰서와 상의하여 즉시 러시아워만이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편안한 차를 타서인지 왜 계속 지연되고 있는지 출퇴근을 직접 2회 이상 해 보시고 결정 답변바람.

6.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본 의원이 4차례나 질문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남기업 쓰레기 적환장 이전에 대하여 첫번째 질문 답변은 96년 말까지 이전 계획을 밝혔고, 두번째는 97년 상반기중 이전 계획으로 밝혔고, 세번째는 97년말까지 옮기겠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으며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주변 시 민방위교육장 주차장 협소로 민원과 사고가 잦은데 전 대지를 지주와 협의하여 매수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으로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속 시원한 답변을 임기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최순영 의원

1. 97년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바 각종 공사 및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수의계약 조건을 초과한 5천만원 이상은 이를 고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조건을 억지로 맞추어 수의계약한 사례들이 나타나 부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억지 분할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예산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확대에 대하여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이 방과 후 환경에서 최소한의 지도도 받지 못하고 있어 복지사회 실현에 역행되고 있는 바 현재 시 소유의 유휴시설을 이용하여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사업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동민원실 폐지에 관하여
LG백화점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실적이 대단히 미미하여 공연한 인력 낭비로 인한 시 운영의 비효율 요소가 되므로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철 의원

1. 소사본3동 백지지구 내에 있는 부천시 종합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와 그 주변의 사유지를 공사착공 이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이종길 의원

1. 오정구 고강본동 근접 4개 동 인구 14만 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원종고등학교 1개 교밖에 없으므로 고등학교 진학하는 문제가 심각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한 바 적극 검토하여 보겠다는 답변서를 받은 바 있는데 부천시장께서도 학교 설립을 위해서 부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적극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2. 부천시에 많은 공원이 산재되어 있지만 공원 내에 작은 규모의 동물원을 만듦으로써 공원을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천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을 가지게 소동물원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3. 직제조정에 대하여
청소업무는 광범위함에도 청소사업소 인력으로는 동까지 행정력이 못 미치므로 구청에 청소과를 신설하여 추진함이 좋을 것 같은데 직제조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전덕생 의원

1. 부천시에 무질서한 인도를 연계성 있게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도로라 함은 인도와 차도로 구분을 하는데 차도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며 인도는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부천시 내 인도의 풍속도를 보면 인도에는 자전거도로가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각종 비스표 판매소 자판대와 가로수 상가에서 내어 놓은 각종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얼마 전 새로운 풍물로 인도에 나타난 것이 블라드라는 경계석입니다. 이렇게 인도의 무질서한 모습은 각 부서별로 사업, 감독 계몽을 하다 보니 무질서함이 무질서의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안전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연결성이 없이 이용되며, 장애인시설은 무관심 속의 설치로, 현실을 감안 안한 관계로 또 다른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블라드의 설치의 도로의 미관을 해치며 위치의 선정도 잘못된 곳이 많으며 주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인도는 이 모든 부분이 연계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 막대한 사업비가 무자되고 있으며 현실성 없는 블라드의 설치의 중지하고 꼭 필요한 지역은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2. 중동신도시지역 개발시 지하에 매설된 불법 폐기물에 대하여 향후 부천시나 개인이 처리비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시민들이 배출하는 건축폐기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현재까지 주로 매립에 의존하여 국가

적 손실과 주민의 부담이 크다. 건축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부천시 자체 처리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4. 엘리베이터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고 및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관리업체하고의 위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부천시측에서도 업체의 지도감독 및 노후 엘리베이터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의 부당한 지출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철현 의원

1. 쓰레기종량제 이후 문제점

- 대형폐기물을 장시간 수거를 안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 주택가 공한지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시의 대책은?
- 자기집 앞 청소와 관련하여

양오석 의원

1. 풍치지구 용역결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추진은 언제쯤?

2. 창고형 중소기업 제품 상설판매장 마련 관내 기업제품을 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기업살리기를 추진할 용의는?
3. 가로등, 보안등 보수유지 비용이 시, 구, 동에서 각각 집행되고 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나?

장명진 의원

1. 시장 해외나들이에 대하여

도내 시장, 군수 중 최다(경기신문 11. 26일자) 몇 회 얼마를 썼나? (9회 7천 4백만원)

2. 중앙로, 경인로 주변 지하도로 공사에 대하여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즉각 중단, 많은 시

민이 우려 언론도 반대하는 입장 확인

전반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시 느낀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소한 내용일지라도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과 궁금증이 해소되고 시민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는 각별한 성찰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매년 지역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실시하여 이제는 인구 80만에 걸맞는 도시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인구 100만을 위한 자족도시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행정에는 토목 및 건축직 등 기술직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기술직공무원의 현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비해 턱없이 인원이 부족하여 일부 직원의 경우에는 여러 건의 공사 감독을 동시에 맡고 있으며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업무에 동원되는 등 본연의 업무인 사업 감독조차도 하지 못하고 감독사업에 대한 사후 책임을 우려하여 감독관직을 기피하고 있어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공사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으로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중에는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한 공사가 없으며 더불어 손쉽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설계조차도 용역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에 쫓기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가설계를 해본다든지, 사업의 효과를 예측한다든지 사업 시작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점검, 평가하기보다는 일에 휘둘러 발생하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은 턱없이 부족한 기술직공무원들을 중원할 방안과 방안이 없다면 이들을 팀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나 건설사업소나 기술감리단 같은 조직을 신설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행정 및 토

목, 행정 및 건축 등 복수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한 현황, 그리고 복수직렬에 행정직을 배치한 자리를 기술적으로 배치할 의지는 있는지? 아울러 시, 사업소, 구, 동직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원미구 공직자들에 대하여 인사를 배려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이지만 부천시의 행정은 울지 않으면 젖도 안 준다는 우리 속담이 자꾸 생각나게 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집단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을 하기 위하여는 각종 진정, 방문, 전화항의, 집단행동을 하면 부천시에서는 귀찮아서라도 행정에 반영을 해주는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조정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시 각종 보고자료를 면밀히 살펴 보았지만 전혀 없어 질문 답변시 관계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시장의 특별지시를 받아 계획을 검토중에 있으며 98년도 1월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시민과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알아서는 안 되는 사항인지, 밀실행정이 각종 업무보고 내용처럼 진정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저도 한 번 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젖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했듯이 구 공영개발사업소, 복사골건영아파트, 시민회관, 부천전화국, 부천남부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신설 개통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80만 부천시민 중 다소의 불편은 참고 행정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대다수 소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 5번버스 종점지역 중동주민의 소망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95년부터 9억 4천여 만원을 들여 가로동 8천9백등, 보안동 9천3백등을 설치하여 인근 시보다는 도심지 밤길이 다소 양호합니다.

그러나 가로동과 보안등 유지를 위한 개·보수예산은 95년부터 3개년 간 가로동은 6억 9천7백만

원, 보안등은 7억 2천만원으로 총 14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총 24억원을 들여 시민편의를 위한 부천시 행정에는 이해가 가나 시설예산보다 개·보수예산이 더 들어 가는 배보다 더 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을 요구하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부천시는 움직이지 않고 매년 가로·보안등의 신설과 개·보수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만여개나 되는 가로·보안등의 관리를 일반직공무원 2명과 기능직공무원 4명, 일용직원 몇 명으로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원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조직을 진단한 실적과 공무원이 직접 고장난 시설을 개·보수한 실적,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지식이나 자격증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계공무원들은 고장난 시설에 대하여 전기업체에만 맡기고 예산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보안등 관리는 동사무소, 보안등 관리예산은 구청, 가로등 관리는 시가 맡고 있는 3원화 체계로 나뉘어져 매우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업무의 전문화와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 관리부서를 한 부서로 통합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 통합 운영할 의향이 없다면 개·보수사업을 공개경쟁입찰이나 용역 등을 통하여 관리방법을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은 96년에는 6억 7천만원, 97년 10월 말까지 6억 2천만원을 계약된 설치등수에 일괄적으로 한전에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을 방치할 경우 불필요한 전력낭비와 많은 전기요금을 낭비하게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일제정비실적과 이를 통하여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력요금을 검토한 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원미구를 비롯한 3개 구청에서는 가로·보안등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인력 및 예산부족, 구의 소관이라는 핑계로 남의 일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3개 구청장들이 건의한 개선방안과 개선방안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도 답변바랍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예산을 절약하고 보행과 차량 운행이 원활해져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시장에게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 중동신도시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천지점에서 생산하는 열을 인천 삼산, 부개지구 등에 공급하고 상동택지개발 내에 지역난방공사를 신축하여 상동택지개발 내의 열공급을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정월남 의원

1. 오정구청 신축문제 구체적인 계획은?
2. 오정대로(2차) 건설공사 계획 및 보상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3. 오정동 안동네 재개발 계획과 공업지역에 대한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4. 풍치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5. 오정동 29통~31통 군부대 후문쪽 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6.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현안사업 추진 중 보상협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안 되는 사업현황, 보상예산 집행현황 및 집행실적과 이에 대한 부천시의 대책은?

김덕균 의원

우리 시가 지난해 7월 어느 다른 도시들보다도 앞서서 조직개편을 하고 성공적으로 민선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격려받을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가 국가경쟁력 제고 또는 규제혁파와 관련하여 공사부문을 가릴 것 없이 우선 감량경영 또는 조직화 정량화가 주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정량화 과제 못지 않게 조직합리화 과제가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조직정량화 또는 감량경영은 업무의 군살빼기를 전제로 합니다. 이제까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오거나 상급기관 등의 타의에 의해 수행해온 버릇같은 과제들 중에서 이를테면 ‘버려야 할 일’ 또는 ‘포기해야 할 역할’을 과감히 접어던져야 할 터이나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인력과 인건비를 잘라냄으로써 시민의 세금을 보다 생산적인 사업에 쓴다는 차원에서 조직정량화 과제의 시급성을 인식합니다만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선 조직합리화를 위해 구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행정조직 합리화 과제와 관련하여 크게 보아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수요에 비하여 행정공급 능력이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집권 그리고 관선자치의 긴 터널을 거쳐오면서 무시됐거나 묵살되어 온 시민불만들이 한꺼번에 분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물적능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치 못한 형편입니다.

이제 어느 한 문제도 간단히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근본적인 처방을 해 나가기 위해 조직인력의 질적, 양적보강이 요구됩니다.

민선차치 2년을 보낸 시점에서, 시민필요에 보다 성의있고 진솔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수정,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시·구·동간에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권한은 시가 가지되 책임은 구로 미루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수직계층간 떠넘기기, 떠맡기, 책임회피, 굶은 일 미루기가 성행하면서 조직능률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조직문화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결국 시민의 삶의 조건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은 면적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지역분담체제보다는 기능분담체제가 시민만족을 위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다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통합되고 일괄된 서비스체제를 갖추기 위해 구제를 없애고 통합관리하되 기능세분화와 업무전문화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커다란 문제 즉, 행정수급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과 수직계층간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그리고 업무의 전문화 요구라고 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시·구·동 3계층제로 되어 있는 행정계층을 시·동 2계층제로 개편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제를 없앨 경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첫째, 시의 행정공급능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개 구 인력의 대부분을 시가 흡수함으로써 현재의 시·구간 수평적 역할분담 모형을 시청 내 수직적 역할분담 모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시의 업무를 보다 세분하여 전문화시키되 책임을 일원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현재 절대인력이 부족한 부서들에 대한 질량 양면에서의 인력보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교통행정과는 신호통과, 버스과, 택시과, 주차장과, 보행교통과, 자전거교통과 등으로 세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교통행정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둘째, 구청이 없어지면 우리 시청의 공무원이 더 이상은 권한은 쥐고 있으면서 책임은 구청에게 미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른 바 3D업무에 대한 떠다맡기가 없어질 것이고, 시청은 별 수 없이

시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일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흔히 책임질 사람이 불분명하다고 탄식들을 하는 마당에 우리의 조직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셋째, 시민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구청이 없어지면서 조직생산성이 커질 것입니다. 구제는 같은 업무에 대하여 시와 구가 수평적으로 잘라 분담함으로써 업무와 권한과 책임의 중복, 누수, 비전문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청사의 신축, 유지비용 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청사는 지역의 복지·레저·교육센터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천시공무원의 인사운영이나 사기양양에 좋다는 것입니다. 승진을 위해 시에서 동으로, 동에서 구로, 구에서 다시 시로 전보되는 3단계 과정이 시와 동간을 이동하는 단순과정으로 줄 수 있어 시와 동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여줄 것임은 물론 잦은 전보를 막아주며 상급기관에의 전입경쟁으로 인한 부담과 부작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전문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더 유리할 것입니다.

구제를 폐지하여 시·구·동 3단 계층제를 시·동 2계층제로 바꿈으로써 행정조직 합리화에 접근해 가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류재구 의원

1.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공무원 정원을 감축할 용의는?
2. 약수터 약수가 고갈되고 있다. 대책은?
3. 옥상녹화사업의 성공 여부와 실효성 있는 녹화사업 방안은?
4. 부천필의 규모를 축소하고 향토예술 등의 민간부문 지원을 확충할 용의는?
5. 영상단지를 할 수 없을 시 대책은?

서강진 의원

1.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현실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인력은행처럼 관리운영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적제적소에 봉사를 하게 함으로써 봉사자들의 자긍심도 높여 줄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2. 시립합창단 및 필하모닉 단원의 80~90%가 외지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친을 사랑하며 애
 향심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바 부친에 적을 둬으로써 부친에 대한 애향심
 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단원의 주거지를 부친으로 이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
 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3. 각종 공사시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운영하고 있
 지만 형식적으로 임명만 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시행 전에 사전에 연락하고
 공사마감 후 승인을 받는 식으로 실질적인 명예감독관 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운
 영되고 있는 바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4. 소사택지지구 내 스포츠종합센터 중장기계획에 의거 96년부터 건립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도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착공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5. 만성 적체구간인 할미로길 교통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대안으로 경인우회
 도로 계획구간인 시계획구간을 우선 개통시켜주어서 차량의 흐름을 분산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시의 추진 계획은?

오세완 의원

1. 주요사업 추진중 분기별 심사분석(평가)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려 또는 사업 중지하는 사
 례가 많은데 지역 균등 발전과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면 시와 3개 구에 사전심사평가제를 도입
 운영할 용의는?